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0월 22일(주일) 제1463호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양재온누리교회
교회 차원의 인구 문제 극복 실천 방안 마련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천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포스터 우측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이 시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방법', 이정민 교수(한동대) '성경적 자녀교육', 신무환 장로 '인구절벽,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문제 인식 및 공유를 위한 사전 강의가 이어진다.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주제 강의도 마련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인구문제, 영적 각성 및 의미', 이철 장로 '대한민국 인구 문제와 교회차원의 문제 해결방향', 박태성 집사 '온누리 인구문제 설문 분석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리더십과 성도들의 패널 토의도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저출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성경적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10월 22일(일)까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기독교적 해결방법'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용 PPT(PDF 파일 접수),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PPT 요약본)를 이메일(tkacjfxkd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1등 1팀 300만 원, 2등 2팀 100만 원, 3등 5팀 50만 원, 참가상 모든 팀 1만 원을 시상한다. 행사 당일 우수작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로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저출산 문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게임체인저가 될 거라 믿는다"면서 "다음세대가 가득한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성도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온누리 미래 & 가족 축제 (OFFC)

Onnuri Future & Family Celebration

"인구문제의 성경적 대안과 교회의 실천"

2023년 10월 28일(토) 10:00~17:00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기쁨홀/ 화평홀/민음홀/온유홀

*우측 하단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강의 1

이 시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최성민 목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본부장

소강의 2

성경적 자녀교육

이정민 교수, 한동대

소강의 3

인구절벽,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

신무환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주강의 1

인구문제, 영적 각성 및 의미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주강의 2

대한민국 인구문제와 교회차원의 문제 해결방향

이철 장로, 온누리교회

주강의 3

온누리 인구문제 설문 분석 및 시사점

박태성 집사, 온누리 미래성장위원회

패널토의

우수공모작 시상(이재훈 목사)

리더십과 패널 토의 : 교회적 실천방안

이재훈 목사, 이철 장로, 최성민 목사

헌재인행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 [문의] 서빙고 목회지원실 [신청]

다. 김병순 장로(미래성장위원장)는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전 세대가 합심해서 비전과 소망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 라면서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지속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변혁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23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10월 21일부터 홈페이지 및 목회지원실

'2023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한다. 10월 21일(토)부터 11월 16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QR 코드,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 대상자는 교회 공동체, 이웃,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하고, 그 이웃의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엔젤트리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소속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문의: 02-3214-3434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11월 5일까지 오전 9시 명동성당 들머리 앞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11월 5일(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현장에 비치된 기도문을 읽고,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된다.

생명과 낙태종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기도문을 다운로드 받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문에는 미국과 한국의 낙태 현황,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의 기도제목 등이 담겨 있다.

문의: 02-703-4620

제직회

일시: 10월 22일(일) 오전 10:3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안간: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안 심의
대상: 모든 제직

공동의회

일시: 10월 22일(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안간: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안 심의
대상: 만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 포럼

10월 25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에서는 노규석 목사 사회, 신철우 장로 기도, 외국인 목회자 특별찬양,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서경남 목사

축도한다.

기념 포럼에서는 1부 송인선 대표(경기 글로벌센터) '한국 이민 정책 방향과 한국 교회의 역할', 도주명 목사(통합총회 이주민 선교) '지역사회 이주민의 변화와 교단과 온누리교회의 역할', 유병설 목사(파주열방교회) '지역 이주민 교회와 온누리교회의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념 포럼 2~5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외국인 사역자 이야기', '온누리 융합선교', '새로운 이주민 선교 영역', '온누리 이주민 선교 현재, 미래' 등을 주제로 간증과 강의도 이어진다. 비전 선포식도 한다.

문의: 031-491-965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크고 광대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가서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세워지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모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이후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서 믿음의 선택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결코 질투심이나 부정적인 감정 없이 온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엘리에셀에게 준 세 가지 지침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에게 그 언약이 이어져야 하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세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친척들에게 가서 찾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냈고, 동맹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선택이 분명합니다.

둘째, 아브람의 믿음은 이삭을 그 땅으로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에서 나옵니다(창 24:5-8).

아브라함의 체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그 땅에 기근이 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 피한 것입니다. 그때 아내를 빼앗길 뻔 한 위험에 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아내를 찾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삭을 절대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로로 갔던 롯이 비참한 아픔을 겪고 그 땅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전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사를 보내 주셔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이후 믿음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 친척들 가운데 만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자녀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며, 믿음으로 서 있는 합당한 가정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엘리에셀이 세운 세 가지 원칙

심부름하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지침을 따라 스스로 세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가정이 세워질 기를 바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의 모든 행동 목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신실한 믿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 배어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우물

에서 엘리에셀을 처음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품성 때문에 리브가가 경계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의 언어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이 나타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12절a).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26-27절a).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찬양받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엘리에셀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12절).

배우자를 찾을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하신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은 사람과 만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꼭 적합한 배우자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증표를 구합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14절).

증표를 하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낙타를 10마리 데리고 갔습니다.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체질이기에 사막 여행에 적합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낙타가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낙타에게 물을 한 번 주는 것을 중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10마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종이 출장을 가는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게 해야 했습니다. 염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가 있음을 보고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인 줄 알겠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증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낙타 열 마리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면의 성품은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것을 증표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섬김과 헌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증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증표를 구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이 증표를 구한 게 아니라 증표를 구하는 사람이 엘리에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는 삶 없이, 믿음의 삶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큰 낭패를 겪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보았고, 그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증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걸어가며,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증표를 구하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도 믿음의 결단을 또 내려야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의 앞날을 반드시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특별한 증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의 의의 3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자!



하선희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뉴욕타임즈〉에서 2018년 밀레니얼 세대가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높은 양육비와 여성들이 자녀보다 직업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여가를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행하고, 일에 집중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고양이들과 놀기 위해 자녀를 포기할 거라고 응답한 한 젊은이는 개인의 자유와 현재의 만족과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많은 현대인을 대변한다.

결혼을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보면 인생을 많은 경험과 경력으로 가득 채워야 결혼을 최고로 잘 할 수 있다며 만혼을 장려한다. 체외수정, 난자 동결 등 기술의 발달로 개인적 성취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망망 미뤄도 내가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아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부추기는 상황도 한몫한다.

사회가 아이보다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주는 게 당연하다. 자아를 실현하느라 높아진 결혼 연령은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결혼이 1년 더 늦어질수록 합계 출산율이 0.1명 줄어든다. 지난 20년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46년 늦어진 결과 합계 출산율이 0.5명 낮아졌다. 여성의 가임능력은 20대 중반 가장 높고, 35세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여성의 초혼(90년 24.8세, 22년 31.3세)과 출산 연령(93년 26.2세, 22년 33세)이 올라가면 저출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데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난자 동결 등 보조 생식기술은 광고와 달리 성공률이 낮을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체외수정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대개 한꺼번에 많은 배아를 만들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착상시키고, 나머지는 냉동시키거나 버리거나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착상된 다수의 배아조차 쌍둥이나 하나만 남겨놓고 다시 선별적으로 낙태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혼이 지연될수록,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증가한다**

고령화에 따른 난임만이 문제가 아니다. 매해 결혼이 지연될수록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도 비슷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공동체적 목적의식과 영적 성숙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소명을 찾고,
그 소명대로 살아내는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결과(마크 맥너리스)가 있다. 특히 여성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단순히 결혼이 가능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교회 내 남성 대비 미혼 여성 비율이 많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자아실현과 현재의 만족 이상의 공동체적 목적의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종교가 지탱하는 문화 규범이 있는 출산 선진국 이스라엘(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 2020년 기준 2.9명)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대인은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시편 127편)이고, “어린 시절은 장미 화관”(탈무드)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킬 보증인이 될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 가르친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적 목적의식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순전히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 공동체적 함의는 인구의 절반이 희생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인구가 회복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역사와 맞물려 더욱 중요하다.

사실 교회인 우리에게도 공동체적 차원의 목적이 있다. 〈창세기〉2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는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는 소명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는 일이나 특정 직업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적, 육적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일에 중점을 두시지, 은퇴 시점의 연봉이나 타이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이다.

어려운 일이라도 결혼과 육아는 축복!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혼은 쉬운 요즘 세상에 부부가 서로 희생하는 것도, 육아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공식을 따라 양육하면 아이들이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도 육아는 자아실현보다 어려워 보인다. 사무엘 등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예가 많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특히 자녀들에 관한 한 하나님의 목적은 수수께끼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이를 가지는 것은 축복이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반문화적인 좋은 예이다. 자

녀 양육은 자아에 주목하는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결혼과 육아는 분명히 힘들기에 공동체적 목적의식을 이해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결혼이 자아 성취나 로맨스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기 위한 자기희생이자 소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들이
문화를 바꿀 힘이 있다!**

최근 〈피플매거진〉에 아칸소주 교사 부부 태시아(23세)와 드루(25세)의 이야기가 실렸다. 현재 자녀를 임신 중인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10대 아이들(태시아의 사촌과 위탁 시설에 배정된 반학생)을 기르고 있다. 이들은 그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되고 돌볼 의지도 있는데 모르는 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들은 공동체적 목적의식보다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바꿀 힘이 있다. 이를 위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업과 스포츠 쏘기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본분과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소명으로서의 결혼의 의미,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목적의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아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지 못했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 중차대한 소명대로 살기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려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의 어른들은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유대교 현자는 “부모가 없는 아이는 고아이지만, 아이가 없는 국가는 고아 민족”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최저 출산국이라는 현실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있는 한 결혼을 미루지 말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공동체적 목적의식과 영적 성숙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차세대부터 대학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번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 참여해서 이를 확인하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금 나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명을 찾고, 그 소명대로 살아내는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변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반드시 세속 문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이웃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문화가 발생하고, 이전의 문화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살아내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 속에 살되, 그 문화에 너무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 문화에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돈, 명예, 권력, 섹스 같은 잘 알려진 우상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강하게 경고한다. 그러나 문화적 우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화에는 앞의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향을 피하기 힘들다.

셋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복음으로 변혁시키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질문받을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의 탈기독교적인 문화는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이고, 방어적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세워 줘야 한다.

“복음을 세상 문화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문화가 변혁될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네덜란드 수상이었고,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인간 존재의 전체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부르지 않은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요약한 바 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각 분야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참여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직시해야 한다. 세속 문화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분별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먼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전문 분야부터 살펴봐야 한다. 자신의 전공 분야는 지식체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높이 쌓아 올린 영역이다. 문제는 대학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이 대부분 세속 전문가들의 이념에 오염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 자신의 전공 분야부터 세속의 이념으로 오염된 기존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 문화 속에 거하되 그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변혁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지자나 숭배자가 많은 문화가 주변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일제의 통치와 한국전쟁 등 교회가 심하게 핍박받을 때 한국 교회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비록 소수였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의 지표로 존경받았었다.** 그 암울한 시기에 성경의 서사를 예술로 승화해 연극으로, 찬양으로, 예배당의 장식으로 세상의 다른 곳보다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고, 주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양적 팽창과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라는 우상을 바라보는 동안 교회 밖 세상도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상승했고, 기독교 문화를 백안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한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절대 진리와 절대 선을 부인하면서 선전과 선동을 통해 진리와 선이 공존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낡은 거라며 배척하게 한다. 더 나아가 진리와 선이 배제된 거짓 아름다움을 새롭고 신선한 아름다움이라 부르며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복음이 없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 선, 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드러내며, 복음을 세상 문화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문화가 변혁될 것이다.

인구감소,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인구절벽 해결책

강애리 목사
(드보라선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학자들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비혼’과 ‘만혼’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비혼 현상의 심각성은 그 수치가 극명히 보여준다. 2020년 기준으로 30대 남성 50.8%, 여성 33.6%가 미혼이다. 이는 1990년대 30대 남성 9.5%, 여성 4.1%에 비해 5배에서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저출산으로 귀결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만혼 현상이 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급속히 진행돼 저출산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산모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 이래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35세 이후 임신의 경우 산모의 건강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 신생아 사망, 조산, 저체중 출생, 염색체 이상을 포함한 발달 질환의 위험이 급증한다. 특히 부모의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면 임신이 어려워지는 난임, 임신할 수 없어지는 불임 위험도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늦은 결혼의 경우 난임으로 인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시술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높아진다. 45세 이상이 되면 자연유산 비율도 높아져서 시험관 아기 시술의 실패율이 거의 100%에 이르게 된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은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 14개국이 ‘가족·자녀’를 1순위로 꼽은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2순위가 ‘건강’이고, 3순위가 ‘가족·자녀’였다.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족과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예측했던 필자에게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두 자녀와 두 손녀를 선물로 주셨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가족과 자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하나 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 사춘기와 함께 우리 몸의 성호르몬 분비의 급격한 변화를 설계해 놓으셨다. 이 변화는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변화시키면서 이성에 대해 생각하고, 그를 향해 이끌리는 마음이 생길도록 만드신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를 10세에서 19세 사이로 규정하지만, 생물학적 성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춘기가 대체로 마무리되는 19세 전후가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은 생육-번성-충만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전통사회에서 이 시기를 결혼적령기로 본 것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축적한 지혜와 통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대에 19세 전후 결혼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

성경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며,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출산으로 연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게 국가(군 복무 연기) 가정(경제적인 지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각 가정의 생육과 양육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은 공산주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릴 때부터 그들의 이념을 심기 위한 목적이다. 성경적 양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존하려는 순간 양육의 독립성과 완전성이 깨어진다.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와 이들의 양육을 지원해야 하고, 반성경적 세상에 대항하는 부모 공동체와 자녀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라는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가? 이 믿음이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때론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

기고

죽음은 순명(順命)이다!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다면 죽음일 것이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했

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은 때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었다.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가족들은 생과 죽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의사가 몇 퍼센트(%) 확률을 제시하며 가족들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그 선택이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서게 한다.

지난해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죽음 가까이 갔다. 몇 군데 병원을 돌다가 정말 어렵게 응급실에 갔다. 설상가상 나는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함께 움직였던 누님이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가 고비를 겨우 넘기고 일반 병실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의사의 질문이 들어왔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수술 성공률이 80% 정도 된다고 했다. 수술을 진행할지 물었다. 어

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수술을 거부하셨다. 링거 주사를 모두 뽑고 완강히 거부하셨다. 어머니는 마지막을 병자로 살고 싶지 않고 했다. 수술하고 몇 년이나 살겠냐며 그냥 사는 데까지만 살겠다고 하셨다. 평소에도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라 쉽게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주변 어르신들도 그 연세라면 수술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조언하셨다. 결국, 아들인 내가 수술을 할 것인지, 수술을 안 하고 죽음을 맞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어머니와 통화했다. 이제 수술을 안 하면 병원을 나와야 하고 그러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다. 얼마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다. 그랬더니 멈칫하시더니 그래도 그러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간 호사로 있는 권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다. 그 병원에서 받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다.

“제가 현재 코로나19 확진인데 어머니 임종은 보고 싶습니다. 공간을 따로 내서 제가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아들로서 꼭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보고 싶었다. 모두에게 허락을 받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어머니 마음이 누그러졌다. 의사의 진료를 따르더니 수술까지 동의했다. 그리고 고비를 넘기고 사셨다.

나는 어머니의 생과 사를 선택해야 했다. 어머니 역시 죽음과 생을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죽음은 결코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죽음에 관한 강의를 했다. 자살예방활동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논문도 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죽음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섰더니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 순간순간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의 신앙과 신념,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지 어른들의 의견 등이 서로 얽히며 극단적 상황으로 이끌어 갔다. 그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 좋은 죽음과 좋은 삶, 그리고 아쉬운 죽음과 아쉬운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된다. 신의 영역에 있어야 할 죽음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선택’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이제 죽음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명(順命)의 시간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때로 인간들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자살이다. 병이나 사고와 같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죽이는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 자살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1만 2,906명이다.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로 죽는다. 자살은 사망원인 6위다. 2022년 코로나

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순위가 한 단계 내려왔다. 자살 다음으로 나타나는 사망원인은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등이다. 놀라운 것은 20대에 자살로 죽은 사람의 비율이다. 20대 사망자 50.6%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강의를 하고, 활동하다 보면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다. “자신이 죽겠다고 선택한 사람을 굳이 말릴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다. 심지어는 “당신이 뭤래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냐”는 비판도 있다. 이들에게는 죽음도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이 있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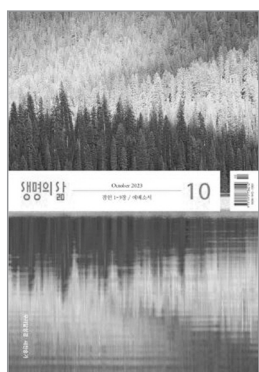
의학의 발달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죽음도 인간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6위에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다.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선택이 아니라 ‘순명(順命)’임을 밝혀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나설 때 이 사회가 제자리를 되찾고, 자살이 사라질 것이다.

* 한국로잔생명위원회 ‘생명포럼’
10월 21일 오후 2시 서빙고 한동홀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성령 충만한 새사람의 삶

10월 23~29일
〈에베소서〉 4:7~6:9



은사와 직분, 성도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지 묵상하자.

▶성도에게 직분과 역할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야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거룩한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서로 지체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직분을 두심으로써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다. 성도의 영적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가 되시기에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행동과 악의를 버려야 한다. 서로 친절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묵상포인트 2: 사랑과 거룩함은 성도다운 삶의 표지다. 우리는 사랑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과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며,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해야 한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

음으로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묵상포인트 3: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주인)과 종 역시 이 원리 아래서 보호와 순종, 존중과 배려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관계와 질서의 훈련을 통해 주시는 교회의 비밀과 하늘의 상급에 대해 묵상하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 역시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종들은 하나님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며, 상전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종들을 대해야 한다. 각 사람이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 묵상을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데까지 다다르도록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자.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옛사람의 말과 행실을 버려야 한다. 언어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달라져야 할 점이 없는지 돌아보자. ▶영적 성숙을 위해 시간 관리는 필수다. 내 삶에서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점검하자. ▶참된 성도는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구하자. ▶부부의 하나 됨, 부모와 자녀 관계의 존중과 배려가 어떠한지 가족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하기로 다짐하자.



〈생명의 삶〉
잠언 개관 영상

/ 〈생명의 삶〉 편집부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외모와 자아상

자녀에게 건강한 자아상 만들어 주기!



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요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아이들이 왜 외모에 집착하게 됐는지 시대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한다.

왜 요즘 아이들은 외모에 집착할까? 첫째, 외모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몇 년 이상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마찬가지다. 분야 최고가 되는 것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외적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걸릴까? 하루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외모를 선택한다.

둘째, 자신의 열등감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조금 작으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 된다. 코가 낮으면 높이는 수술을 하면 된다. 필자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특히 복코인 내 코가 싫었다. 어릴적 배우 이영애를 닮은 예쁜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열등감에 싸여 있었다. 코 모양만 예뻐지면 자신감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에는 외모를 통해 열등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모를 바꿔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 세상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판단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그룹을 보면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 있는가? 하나 같이 얼굴이 작고, 키가 크고, 날씬하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얼굴이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회사 면접을 보기 전에 얼굴을 성형하고 간다. 그만큼 세상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 우리 자녀들도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다. 잘난 외모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

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외모와 상관없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거울이 찌그러져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자아상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아상을 만든다.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단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한다. 엄마가 아들에게 “나는 네 아버지를 참 좋아하는데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라는 말을 건네면 어떨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반대로 아빠가 딸에게 “나는 네 엄마가 정말 좋아. 어쩔 너는 엄마를 그렇게 똑 닮았니?”라고 말해주면 딸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들은 유전학상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닮은 엄마와 아빠를 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자녀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다음 중요한 것은 자녀를 부모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순종적으로 자라기 원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한다. 굉장히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는 아이를 자신들의 능력치로 바라볼 수 있다. 부모의 시선으로 자녀에게 유능감과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외모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 하나는 ‘식이장애(거식증, 폭식증)’다. 특히 거식증을 앓는 아이들은 음식을 안 먹는다. 날씬한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외모를 통해 완벽주의의 구현을 추구한다.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굶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드러내놓고 반항하기 어려워서 굶는 방법으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다. 외모와 관련한 또 하나의 심리적 문제는 ‘신체변형장애’다. 자신의 외모 중 일부가 기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눈이 짝짝이예요”, “저는 왼쪽 다리가 길어요”라고 말한다. 신체는 모두 비대칭이다. 대칭일 수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것에 집착할까? 부모가 평소 “너는 이래야 해”라는 정형을 만들어 놓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몸을 통한 완벽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형화시키려는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다. 결국,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한다.

성경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할까?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창조주를 아는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외모에 100%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말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 알게 된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의 가치가 얼마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 가치 있다. 키가 작으면 어떤가? 복코면 어떤가? 나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자녀를 조건과 방식에 가두지 않고 키울 수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처음 지음을 받은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성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4편 외모·자아상]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 감사로 십일조를 드려요(1)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0월 18~19일 본문(엡 2:4~10, 엡 2:17~22)



1.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것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엡 2:4-10)

2.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모퉁잇돌(기둥 밑에 기초가 되도록 받쳐 놓은 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이곳으로 지어져 가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이곳은 무엇일까요?(엡 2:17-22)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QT 간증

“QT하면 행복해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1부 2학년 6반 조이든입니다. 저는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QT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랑 했는데, 초등학교가 되고 나서는 혼자 하고 있어요.

QT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0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

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QT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행복해졌고, 제 작은 잘못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QT하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직 QT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QT하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꼭 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조이든 학생
(서빙고 유년1부)

“막힌 담을 헐라!”

비대면 시대, 소통하는 계절을 앞당기자!



김수민 목사
(칼럼니스트,
동대문중앙공동체)

최근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로 삶을 전환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니멀 라이프란 말 그대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말한다. 자녀들도 외국에 나가 있는데 부부 둘이 무거운 살림살이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다. 책과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다. 버릴 책, 기증할 책, 간직할 책과 자료를 분류한다는 게 간단치 않았다. 3대가 함께 살아온 우리 집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살림살이까지 적어도 1세기간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살림살이도 그랬고, 가치관도 그랬다. 그릇조차 어머니가 일제강점기부터 간직해 온 종갓집 백항아리와 놋수저, 화초장까지 보물단지처럼 자리 잡고, 우리가 결혼할 때 혼수로 준비한 7점 반상기 세트부터 다기들, 해외 출장 때마다 사 모은 각국의 머그잔들, 한식, 양식 요리 기구들까지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온 텀블러들까지 즐비했다.

나에게는 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었다. 이번에 눈에 들어온 건 수십 개의 뷔페 접시였다. 신혼 때 집들이부터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에 많은 그릇이 필요했다. 교회 순예배, 심방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했었다. 언젠가는 넓은 정원에서 파티를 자주 여는 환상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게 달라졌다. 온라인(Zoom) 모임을 지향하면서 많은 인원이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이제 우리 집에서 단체모임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과감하게 내다 버렸다. 모임 때마다 거실에 펼쳐던 큰 상들도 다 치웠다. 친척이나 이웃이 함께 모여 김장하고 나눠 먹던 풍습도 없어졌다. 이제는 온라인 마켓에서 김치를 시켜 먹기 때문에 여러 개의 김치통도 필요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양식이나 신앙 생활 면에서 많은 변화가 왔음을 느낀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말씀을 나누는 일대일제자양육조차 온라인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온라인 중심의 삶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번거롭지 않은 점도 있지만, 가족 관계도 이렇게 변해간다는 게 왠지 서글프게 느껴진다.

가정은 소통 훈련, 교회는 전문상담 인프라

개인주의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명절 때면 자녀들에게 한복을 입혀 부모님을 찾아뵙던 풍속도 본 지가 오래되었다. 명

절 전에 부모님을 찾아뵙든가 아예 건너뛰고 황금연휴를 즐기러 해외로 발길을 돌린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주변에도 가족 간 소통 단절로 인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적지 않다. 사업가인 한 회장님은 외아들을 해외 명문대로 유학을 보냈고 결혼할 때 집도 사줬는데, 손주들이 보고싶어 현지에 가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해서 호텔에서 묵는다. 그나마 아내는 아들 집에 머물다 온다는 기막힌 사연이다. 아들들은 성장기에 아버지로부터 겪은 상처로 골이 깊어져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여성 사업가는 미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데 90이 넘는 연세에도 고가의 SUV를 직접 운전하고 주택도 수십 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들들과 소통이 안 된다. 큰아들은 미국 유학 이후 국내 대기업 CEO로 스카우트 되

교우 및 이성 관계,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 문제도 있지만, 가족 갈등, 부적절한 양육, 부모에 의한 학대 등으로 인한 우울증, 조울,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는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3.7만 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들이 822명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교회가 더욱 관심을 두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미디어 중심, 비대면 확산 현대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회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의 교회 출석률이 코로나19 이후 71%로 줄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영역도 대면 예배보다 미디어의

이해하셨기에 눈높이 대화를 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자, 모함하는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비열한 자, 차원이 낮은 자, 배운 자, 무식한 자 모두를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하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셨다. 자녀가 우왕야왕 즈음 부모는 아기의 눈동자에 자신의 눈을 맞추며 말이 안 되는 말로 함께 대꾸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그것이 소통이다. 놓쳐버린 소통의 기회가 아깝지만, 다시 오는 시간을 더 멋지게 만들면 된다. 남아있는 시간과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말해야겠다. 내 문제, 내 목표, 내 가정, 내 행복에만 초점을 맞춰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과 눈을 맞출 겨를도 없이 멀어져 있기 십상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나이를 먹거나 병이 들거나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 없다.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다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한눈을 팔면 곧 죽음의 위기에 빠진다.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공중을 향해 버둥거리다 뱃속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 양 떼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목자는 이탈하는 양의 20%는 통상 포기하는 게 관례이지만, 좋은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평범하게 은행원 생활을 하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1840~1901)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져 21세에 입대했는데, 빅스버그 전투에서 날아온 수류탄에 한쪽 팔을 잃었다. 아전병원에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의 옆에는 심한 부상으로 울부짖는 한 병사가 있었다. 간호사는 그 병사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믿음 좋은 어머니를 따라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기에 자격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계속되는 간청에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다가가 기도해줬는데 눈을 떴을 때 그 병사는 숨을 거뒀지만 방금 고통으로 찡그렸던 얼굴 대신 정말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휘틀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게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났다. 그는 제대 이후 구세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명한 부흥전도자이자 찬송 작사·작곡가가 되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빈들에 마른 풀 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무디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순회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복음을 증거했다.

비대면 시대에 더욱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영혼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느껴지는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간의 담을 헐고 소통하는 계절을 앞당겨보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비대면 시대에 더욱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영혼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느껴지는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간의 담을 헐고 소통하는 계절을 앞당겨보자.”

었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이 연결해 주는 상황이다. ‘어렸을 때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라는 추측도 해보지만 당혹스러운 일이다. 성공한 자녀들과 많은 재산이 그분한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요즈음 강남은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치열하다. 유치원 때부터 의사가 될 재목으로 공부시키는 부모의 교육열로 아이들이 쉴 틈이 없다. 사춘기를 지나 청년기가 된 그 자녀들의 마음에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부모에 대한 감사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을까? 자녀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모든 걸 바쳐 공부시키고 앞날을 열어준 부모들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부터 가르쳤다면 성공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의 은혜를 잊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외롭기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처럼 QT 훈련이 잘되어 있는 성도들은 비교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동체에서도 소통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한국 교회 성도 3명 중 2명이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출석교회 성도 수가 적을수록, 젊은 층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불만 사항으로 가장 큰 비중은 교회 내 소통의 부재였다. 그나마 공동체 순예배에서 온라인(Zoom)으로라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관심을 두면 외로움과 고통의 무게를 견뎌낼 힘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성별 간 갈등, 지역 갈등이 소통을 막고 있다. 정치권에서 본을 보이지 않으니 뉴스를 대할 때나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해심이 생기는데 모두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예수님은 듣는 자의 수준과 언어에 맞춰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들이 살아온 과거를 깊이

멘토가 멘티에게

섬김은 기쁨, 사랑, 행복!

“봉사를 권유받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꼭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지체와 교제하고, 봉사를 권유받는다. 지인이나 친한 성도들의 권유이기에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청년 시절 후배의 권유로 차세대 교육부서 봉사와 성가대 등 여러 부서에서 활발하게 섬겼다. 지금 돌아켜 보면 그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던지 자문하게 된다.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합력하고, 선을 이뤄가는 개인의 삶과 놀라운 몸 된 교회를 알게 된다. 처음부터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딱 맞는 봉사의 자리가 있기도 하다. 반대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섬기면서 감춰진 재능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래서 자신 있고 잘하는 것을 무조건적 수용하거나 잘 못하는 것이라 여기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참 부르심 안에 거하는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봉사와 섬김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청년이 하나님께 여쭙보고, 스스로 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다.

“이 놀랍고 귀한 봉사의 부르심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

첫째,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근간이 되는 질문이다.

둘째,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도 내면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앙생활이나 섬김의 봉사는 모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과 친밀함이 더욱 커지고, 그분이 나의 삶에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별하게 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몸 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신다. 섬김과 봉사의 콜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다. 부르심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

셋째, 나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은 성령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에 관한 것이다. 참된 예배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경배한다. 더불어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을 소홀하지 않다. 한 몸임을 인식하고, 형제자매를 돌보며,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쓰

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나눔과 섬김이 예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섬기는 일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기쁨과 확신에 차게 된다. 섬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섬김이 된다. ‘봉사’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닦아갈 수 있다. 교회 밖에서는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놀랍고 귀한 봉사의 부르심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축복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깊어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섬김은 기쁨이고, 사랑이며, 행복이다.



하갑천 멘토
(인천웹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감정이 수용되는 네 가지 대화 방법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 받아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정을 표현했을 때 배우자가 받아준다면 친밀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롬 15:7). 그런데 부부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누는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나누고자 하는 감정을 놓치는 이유가 다양하다. 말에 포함된 사실과 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말을 소홀히 여긴다. 또한 자신 입장에서 온전히 수용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능동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자신이 겪어봤던 사건이나 감정이라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감정들은 온전히 받아내기 어렵다.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감받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더라도 대화하면서 온전히 공감받고 싶기 때문이다.

감정을 “왜 그렇게 느껴?”보다 “그렇게 느끼는구나!”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수용해주면서 자신과 다르게 느끼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감정이 상황에 맞지 않게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은 사연들이 있다. 때론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배우자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 이유를 듣는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의 저서 <결혼 건축가>에서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의 중요성과 그 종류를 설명한다.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배우자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배우자가 그에 대한 반응을 서툴게 하거나 무시할 때 대화의 단절을 느낀다.

어느 날, 배우자가 “직장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골치 아파서 출근하기 싫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무엇일까? 일단 수용적이지 않은 반응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을 찾아봐”라고 대답한다면 매우 적절하지 않다. 너무 직접적으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다. 대답은 당사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해답을 듣고 싶은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욕구가 훨씬 크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군요. 많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라고 배우자의 이야기에 반응해 준다면 자신의 힘든 감정을 온전히 공감해 준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배우자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자신의 감정이 거절되거나 수용되지 않은 상황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방어와 변명이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생긴 불편한 감정을 나눴을 때 방어와 변명을 지속한다면 서로의 마음이 충돌하게 된다. 둘째, 너무 급한 사과도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급하고 단호하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셋째, 공격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아!”라는 반응이다. 그 외에 충고, 경멸, 제언 등이 있다.

배우자의 감정이 묻어 있는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거칠게 다룬다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감정이 수용되는 대화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바로 ‘반영’, ‘명료화’, ‘탐색’, ‘공감’이다. 반영은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 해주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돌려주는 반영을 할 때 상대의 감정을 잘 수용하게 된다.

반영해야 할 대화 내용이 다소 많다고 생각된다면 명료화해서 다시 전달 해주는 게 좋다. “당신의 말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렇다는 거죠?”라고 명료화해서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명료화하면 말하는 사람도 불분명했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기 때문이다. 주요 감정이 무엇이고, 무엇을 공감받고 싶은지도 확인할 수 있다. 명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질문을 하면서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잘 이해했어?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면 이상적이고 수용적인 대화가 될 것이다.

“직장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듯이 힘들다는 거죠? 나라면 삶의 의욕도 많이 상실되고, 절망감이나 우울감이 들 것 같아요”라고 대화 중에 섞여 있는 감정에 공감적 반응을 한다면 감정을 더 깊이 나누는 대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던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수용해 줘야 한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CGN, 인체 탐험 애니메이션 ‘우리 몸으로, 풍당!’

CGN이 지난 10월 20일(금) 기독교 OTT ‘풍당’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를 선보였다. 어린이를 위한 인체 탐험 애니메이션 ‘우리 몸으로, 풍당!’의 새로운 에피소드다. 지난 6월 선보인 ‘소화기관 어드벤처’편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다.

‘우리 몸으로, 풍당!’은 인체 탐험을 통해 과학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도록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이번에 선보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편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 사람의 탄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서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태어날 때부터 정



CGN이 어린이를 위한 인체 탐험 애니메이션 ‘우리 몸으로, 풍당!’ 2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를 선보였다.

해진 것이고, 바꿀 수 없는 창조 질서라는 진리를 배운다.

‘우리 몸으로, 풍당!’ 2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는 기독교 OTT ‘풍당’ 앱이나 홈페이지(www.fondant.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스마트TV로 시청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LG스토어 또는 삼성스토어에서 ‘풍당’을 검색하고 설치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11월 18일과 25일 ‘청춘클래스 6기’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춘클래스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8일(토)과 25일(토)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열린다.

청춘클래스 6기에서는 11월 18일(토)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와 유튜버 책 읽는 사자가 강의하고, 25일(토) 가수 박지현, 서명선 부부가 강연 및 특순한다. 참가자 3대 3 대화, 1대1 대화, 레크리에이션 등

도 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개별 연락한다. 연애 잘하고 싶은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 5일(일)까지 남자 30명, 여자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7만 원(식식 포함)이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256기 온라인 결혼예비학교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

256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와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커플이 대상이다.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신

청하면 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업로드되고,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교재는 PDF 파일로 커플당 1권씩 제공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263

농어촌 목회자 자립 스쿨 개최

25개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사모 38명 참석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농어촌 목회자 자립 스쿨(이하 자립 스쿨)’이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양평 ‘숲속작은나라펜션’에서 열렸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농어촌 선교팀이 협력해서 준비한 자립 스쿨에서는 양계 사육의 실질적인 기술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나눴다. 2박3일 동안 25개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사모 38명이 참석했다.

조규필 목사(맹선은혜교회)는 “자립 스쿨 덕분에 자립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핑퐁 in Love’

11월 18일 오후 3시 양재 하용조 기념 채플

온누리탁구선교회에서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핑퐁 in Love’를 개최한다. 11월 18일(토)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 기념 채플(4층)에서 열린다.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핑퐁 in Love’는 1부 탁구대회, 2부 식사 및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가 설교하고, CRUX, 양영자 선교사(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

수 이무송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핑퐁 in Love’에 문의하면 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이다.

양영자 선교사는 “함께 탁구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에 많은 분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8761-4178

“죽음은 선택될 수 있는가?”

한국로잔생명위원회 ‘생명포럼’ 개최

지난 10월 21일(토) 한국로잔 생명위원회에서 생명에 대한 논의와 생각을 나누는 ‘생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로잔 생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이 주관했다.

이번 생명포럼에서는 ‘죽음은 선택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돈 교수(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와 박상은 원장(한국로잔 생명위원장, 샘병원 미션원장)이 ‘자살, 극단적 선택’, ‘의료조력자살 및 연명의료 중단, 마지막 선택’을 주제로 강의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 홍하영 기자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11월 4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가 11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열린다. 만 29세 이하 크리스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 및 입금 완료 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만 원, 점심이 제공된다.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에서는 이서진 목사(허브대학부) ‘만남의 축복’, 조용호 교수

(전 전주비전대 교수), 강미향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 ‘만남 그리고 결혼, 그 새일을 행하시라니’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개그맨 조래훈 MC와 함께하는 Ice Breaking, Unknown Crew의 워십댄스, 결혼한 선배 부부의 실제 연애 토크쇼 등도 열린다.

문의: 010-5628-8872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일.하.세.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10월 2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

일.하.세.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9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열린다. 모집인원

은 50명, 회비는 5만 원이다.

윤선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는 “일.하.세. 아카데미 덕분에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문의: 010-3488-5382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4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부모반)과

화평홀(청소년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4548-1522

온누리교회 정관

정관 개정 취지

2018년도에 개정된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담임목사는 3년의 임기로 시무하시는 목사님으로 위임목사는 70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목사님으로 구별하게 된다. 한국교회 내에서 담임목사라는 명칭이 익숙하므로 성도들은 편한 대로 호칭해도 된다. 그러나, 대외적인 문서에는 위임목사로 개칭하게 된다. 둘째, 성도 및 임직자에 대한 권징 절차가 마련되었고, 셋째, 목사님, 장로님의 휴무 제도를 명확히 하였다. 정관 개정에 따라서 목사 청빙 절차에 대한 규정, 임직자 규정 및 권징 규정이 같이 마련되었다.

〈2023년 9월 2일 당회 승인〉 붉은색 Text는 2018년도 개정된 정관에서 변경된 부분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라 칭한다. 영어로는 “Onnuri Church”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교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표방하고, 복음전도와 선교(해외선교, 사회선교)를 통하여 온누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교회의 주권)

-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 본 교회정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제2장 교인

제5조 (교인의 자격)

- 본 교회가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성도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된다.
- 본 교회의 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6조 (책임)

본 교회의 교인은 예배와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책임을 진다.

제7조 (권리)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입교, 이하 같다)교인은 본 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교회의 제직회, 공동의회 등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8조 (공동의회)

- 공동의회는 만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 정기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의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당회장이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고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임한다.
- 공동의회는 의장이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의회 권한은 아래와 같다.
 -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 위임목사 청빙 및 위임 청원
 -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9조 (제직회)

- 제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로 구성한다.
- 제직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제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 당회장이 제직회의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여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직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직회는 당회가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당회)

- 당회는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 당회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기 유고시 당회운영위원 장로 중 최연장자가 서기를 대행한다.
- 당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재직 당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직 당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공동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청빙시 최종후보자 결정
 - 위임목사의 노회로의 위임승인 요청
 -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위원의 선출과 해임
 -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교인의 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1조 (당회운영위원회)

- 당회운영위원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장로 운영위원 및 당회장이 지명하는 부목사 2인으로 구성하고, 당회장은 당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당회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외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당회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당회운영위원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당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 당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
 -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임직 후보자 추천
 - 기타 당회가 위임한 사항
-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당회분과위원회)

- 당회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명칭, 역할, 구성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당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당회분과위원회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실행하고, 그 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제4장 직분

제13조 (직분의 종류)

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를 둔다.

제14조 (목사)

-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②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당회장으로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 ③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당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장로)

-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가 위임한 사역 및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며,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 ②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4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노회 및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장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은퇴한 장로와 명예장로 및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 ⑤ 장로의 종류, 호칭,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권사)

- ①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거나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 ②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50세 이상의 여성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여성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권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②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3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8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등)

- ① 본 교회의 장로(명예장로, 협동장로 포함), 권사(명예권사 포함), 안수집사의 자격, 선발절차와 임직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9조 (전도사)

- ①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도사의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

- ①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
-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 4)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 ②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 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 조항을 준용한다.
- 2)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 3)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 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 5) 사임과 사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는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21조 (캠퍼스교회)

- ① 본 교회는 국내에 캠퍼스교회를 두고, 캠퍼스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

와 사역을 담당한다.

- ② 캠퍼스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 ③ 캠퍼스교회 목사(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와 재정,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④ 캠퍼스교회에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⑤ 캠퍼스교회의 설치와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고,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비전교회)

- ① 본 교회는 해외에 비전교회를 두고, 비전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와 사역을 담당한다.
- ② 비전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 ③ 비전교회는 교인총회를 두고, 비전교회 교인은 그 회원이 된다.
- ④ 비전교회 목사의 인사와 장로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과 권사·안수집사 임직은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 ⑤ 비전교회의 설치와 폐지, 분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⑥ 비전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책임목회제)

- 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교회는 본 교회의 부목사 또는 해당교회에서 임용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독립하여 운영하되,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교회와 그 운영방법은 당회가 정한다.

제24조 (Acts29 미션공동체 : AMA)

- ① 본 교회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교회, 그 외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AMA(Acts29 Mission Alliance)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각 지역별로 OMA(Onnuri Mission Alliance)를 둘 수 있다.
- ② AMA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책임목회제를 시행하는 비전교회는 원칙적으로 AMA(또는 OMA, 이하 같다) 소속으로 하고, 당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교회를 AMA에 소속하게 하거나 AMA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본 교회는 AMA 소속 교회와 상호교류 및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힘쓰고, 이를 위해 AMA 또는 그 소속교회에게 적절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협력관계)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교회나 기도처 등이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서 그 교회 등과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26조 (공동체)

- ① 본 교회(캠퍼스교회 포함, 이하 같다)는 공동체를 둘 수 있고, 공동체에는 다락방과 순을 둘 수 있다.
- ② 공동체에 담당목사를 둔다.
- ③ 공동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④ 공동체의 구성, 분리,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사역본부)

- ① 본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본부(사역부서 포함,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 ② 사역본부에 본부장 또는 책임자를 둔다.
- ③ 사역본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은 당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인 및 기관·단체

제28조 (법인·기관·단체)

- ① 다음은 본 교회 산하에 있거나 본 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기관, 단체들(이하 “유관기관”이라고 칭한다)이다.
1.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2.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3. CGNTV
4. 두란노해외선교회
5. 사단법인 더멋진세상
- ② 본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그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본 교회는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유관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29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8조의 유관기관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 ① 제28조의 유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 또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임명 또는 해임
 2. 이사, 위원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3. 부동산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 등 소유재산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4. 당회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제1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유관기관의 대표자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31조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 교회의 재정운영은 수입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 ③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지출에 관하여는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예산·결산)

- ① 본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해마다 직전 연도 12월 중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집행예산의 결산은 이듬해 2월 내에 당회와 제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33조 (재정위원회)

- ① 본 교회는 재정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는 본 교회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정위원은 당회장, 재정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재정위원회는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심의·편성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직전 연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재정위원회 산하에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하여 예결위원회를 둔다.
- ⑦ 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감사 및 감사위원회)

- ① 본 교회는 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감사는 당회장 또는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
- ③ 감사위원장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재산의 취득과 관리)

- ① 교회가 취득한 재산은 교회의 소유로 하되, 교회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명의로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다.
- ② 본 교회 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방법과 절차는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재산의 관리는 재정위원회가 주관하되, 온누리선교재단 또는 재정전담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권징

제36조 (당회 기소위원회)

- 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교 헌법 제3편 권징의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과를 발견한 경우, 소속 공동체의 기소나 고발에 의해 재판을 시행한다.

- ② 기소는 피고소인 소속 공동체의 운영위원회의 기소나 고발에 의해 성립되며, 당회에서 서면으로 접수함으로 당회에서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 ③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7조 (당회 처리위원회)

- ① 기소위원회는 기소의뢰 접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할 경우 당회 처리위원회에 재판을 이첩한다.
- ②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처리위원회의 선고는 견책, 근신, 참여정지, 출교로 한다. 당회는 선고 기록을 교적부에 기입한다.

제38조 (권징에 대한 시행규칙)

기소/고발 및 재판, 선고의 과정은 장로교 헌법에서 정한 규례를 따른다. 기소위원회와 처리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당회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39조 (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교회의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40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에서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

당회는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총회 헌법과의 관계)

권징 및 그 외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6.)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23.9.2.)

제1조 (효력 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끝)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 신·구 대조표

위치	개정 전 정관 (2018년12월16일)	개정 후 정관 (2023년9월2일 당회 의결)
제8조 (공동의회) 5항	⑤ 공동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2.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3. 담임목사 위임 4.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5.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⑤ 공동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2.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3. 위임목사 청빙 및 위임 청원 4.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5.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0조 (당회) 1,2,5,6항	① 당회는 담임목사 ,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② 담임목사 가 당회장이 되고,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① 당회는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②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가 당회장이 되고,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없음	⑤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⑤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담임목사 청빙시 최종후보자 결정 4.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위원의 선출과 해임 5.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6. 교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⑥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청빙시 최종후보자 결정 4. 위임목사의 노회로의 위임승인 요청 5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위원의 선출과 해임 6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7 교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4조 (목사) 2,3,4,5항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② 담임목사 는 당회장으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③ 담임목사 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당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②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당회장으로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③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 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당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 (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	없음	제20조 (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 ①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20조 (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직)	없음	3)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4)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없음	②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조항을 준용한다. 2)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3)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5) 사임과 사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는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번호변경 (제20조 신설로)	제20조 제21조	제21조 제22조

위치	개정 전 정관 (2018년12월16일)	개정 후 정관 (2023년9월2일 당회 의결)
제23조 (책임목회제)	제22조 (책임목회제) ① 제20조 및 제21조 의 교회는	제23조 (책임목회제) ① 제21조 및 제22조 의 교회는
제24조 (Acts29 미션 공동체 :AMA) 2항	② AMA에는 최고이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 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② AMA에는 최고이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협력관계)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의 (이하 생략)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의 (이하 생략)
조항 번호 변경 (제20조 신설로)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8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7조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제29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8조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제30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제30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① 제28조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제30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① 제28조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조항 번호 변경 (제20조 신설로)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신설 제8장 제36조, 제37조, 제38조	없음	제8장 권징 제36조 (당회 기소위원회) 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교 헌법 제3편 권징의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과를 발견한 경우, 소속 공동체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재판을 시행한다. ② 기소는 피고소인 소속 공동체의 운영위원회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성립되며, 당회에 서면으로 접수함으로 당회에서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③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없음	제37조 (당회 처리위원회) ① 기소위원회는 기소의뢰 접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할 경우 당회 처리위원회에 재판을 이첩한다. ②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처리위원회의 선고는 견책, 근신, 참여정지, 출교로 한다. 당회는 선고 기록을 교적부에 기입한다.
	없음	제38조 (권징에 대한 시행규칙) 고소/고발 및 재판, 선고의 과정은 장로교 헌법에서 정한 규례를 따른다. 기소위원회와 처리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당회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 번호 변경 (제2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신설로)	제8장 기타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9장 기타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부칙 추가		부칙 (2023.9.2.) 제1조 (효력 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 월요일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플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화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창조과학탐사
일시: 11월 6일~7일 1박2일
장소: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김제 7자교회, 부안 채석강(반도국립공원) 등
회비: 13만 원(적은교회 및 선교사님 50% 할인)
문의: 김종명 탐사팀장(010-7636-6305)

2024년 온누리교회 미화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업무: 건물 내외부 및 주변 외곽 미화관리 및 지원, 기타 지정 부속 건물 청소
인원: 서빙고(13명), 양재(15명), 양지(4명)
계약: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2년)
마감: 10월 28일(토) 17시까지
문의: 02-570-7501, 010-3309-9243

서빙고 한글학교 교사 모집
대상: 외국어 예배 참석자
장소: 서빙고 B101호
시간: 주일 12시, 1시, 3시
자격: 한국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
문의: 강을구 팀장(010-5337-3619)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도서 및 잡지, 성경 등 제작관리 1명, 콘텐츠팀 웹/앱 기획자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02.573.9686

토요일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일아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렐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일주일예배
토요일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일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일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일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일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일여성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일 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일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일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일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일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빌 2층 6호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전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알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tor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8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중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미리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식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찬
신성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뮈엘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대하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현효 정현식
정형권 정희성 제지은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환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카 히शी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중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우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鄭美珠 마주마눔
박씨마 백승현 비 겐 서영철
성아메는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
이틀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애라푸로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존골레이 체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전도사(파트)

강구용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곽시은 구길모 권대식 권예람
김기희 김기태 김디모 김동규
김만석 김미리 김민수 김의연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의연
김종균 김정부 김지선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해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송선재 신기환 신재복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열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봉준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성원
정성민 정은영 정연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환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남열 김석인 김성인 김수광 김수영

김광선

김명종 김선래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기호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남식 김상섭 김성복 김 완 김완

김광준 김명철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의 더 깊고 풍성해진 신약 브리핑!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오십쇼 추천 영상



12편 인생의 벼랑 끝에서 뿔은 한 마디

마가복음 6~10장
#오병이어의 기적 #치유 기적 #귀신 들린 아이



8편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마태복음 1~11장
#예수님의 계보 #산상수훈 #동방박사



7편 2천 년 전, 십자가 사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22~24장
#최후의 만찬 #십자가 재판 총정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2편 누가복음 펼쳐보기 (feat.예수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5장
#예수님의 탄생 #시험받는 예수님 #중풍병자와 친구들



생생한 신약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유튜브 **CGN** 채널 검색

 앱 및 웹사이트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